



發行人 李徐泰
 編輯 李徐泰
 印刷 李徐泰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
 서울특별시 중구 동국로 3가 26
 電話 8511-9
 本社直通 電話 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681
 경북 울진군 현곡면 금
 장리 707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新嘉洞시위관련, 本校生 15명 구속

지난3일 벌국민투쟁 실천대회 열려

【경주 18일 특보】 18일 오전 10시경 서울 신계동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86년 11월 18일 3개소서 투표' 관련 시위 관련 15명 학생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은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시위 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총선거 20일 당락 판가름

2개조 경합 18·19일 3개소서 투표

【경주 18일 특보】 18일 오전 10시경 서울 신계동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86년 11월 18일 3개소서 투표' 관련 시위 관련 15명 학생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은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시위 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제19대 총선거를 위한 투표소가 18·19일 양일간이 열렸다.

각 단과대 회장선거 무사히 마쳐

【경주 18일 특보】 18일 오전 10시경 서울 신계동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86년 11월 18일 3개소서 투표' 관련 시위 관련 15명 학생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은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시위 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화 학술회의

【경주 18일 특보】 18일 오전 10시경 서울 신계동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86년 11월 18일 3개소서 투표' 관련 시위 관련 15명 학생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은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시위 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제 심포지움 盛了

【경주 18일 특보】 18일 오전 10시경 서울 신계동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86년 11월 18일 3개소서 투표' 관련 시위 관련 15명 학생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은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시위 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鄭然讀·田雲培군 行試합격

【경주 18일 특보】 18일 오전 10시경 서울 신계동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86년 11월 18일 3개소서 투표' 관련 시위 관련 15명 학생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은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시위 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대총장에게 신남선봉 정기총회서 당선확정

【경주 18일 특보】 18일 오전 10시경 서울 신계동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86년 11월 18일 3개소서 투표' 관련 시위 관련 15명 학생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은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시위 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慶州 비상총회 열려

【경주 18일 특보】 18일 오전 10시경 서울 신계동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86년 11월 18일 3개소서 투표' 관련 시위 관련 15명 학생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은 신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시위 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리밑에서 주워온 아이”

옛날 어른들은 아이가 말을 잘 듣거나 말을 배우면 “나는 다리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아무런 생각없이 어른들을 놀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어린이는 어릴적부터 거짓말 하는 것을 예사로이 생각하게 되고 마찰과 어른이 되어서도 거짓말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불신은 거짓말과 거짓행위를 하는데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큰 병폐중의 하나인 불신風潮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생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더라도 사회에서 불신을 받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무능한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내부에서도 불신風潮가 광배하면 회사를 경영하기가 어렵고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서 거짓말을 안하고 믿는 분위기가 탈때 불신風潮는 사라지고 우리사회는 더욱 명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 선경·선경원·선경화학·선경메그네트·세라콘·워커컴·선경건설·(주) 화인·(주) 유공·승국상사·유공예문

유고슬라비아를 다녀와서

유고슬라비아는 1945년 5월 8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이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싸워 승리한 후, 유고슬라비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공화국은 1963년 11월 30일 현재의 국호인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1992년 11월 25일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해체하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공화국, 그리고 코소보가 독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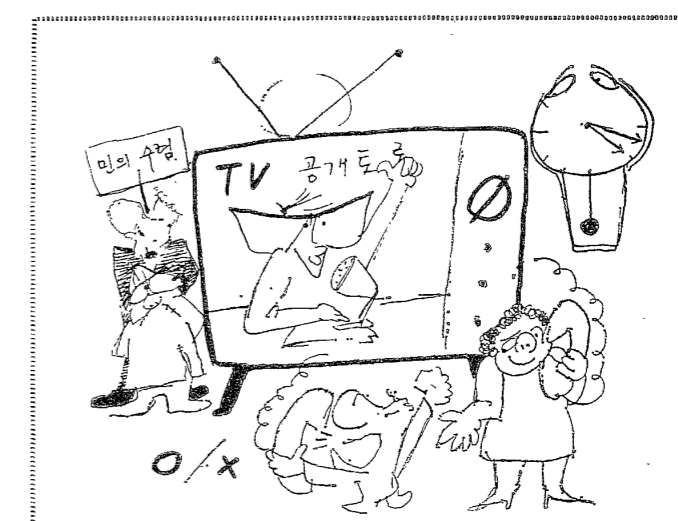
유고슬라비아는 1945년 5월 8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이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싸워 승리한 후, 유고슬라비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공화국은 1963년 11월 30일 현재의 국호인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1992년 11월 25일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해체하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공화국, 그리고 코소보가 독립하였다.

민意수렴통한 자주화 사회로...

텔레비전 생방송 통해 각계의견 청취
노동자수입인, 노동자대표회의,로 결정

노동자수입인, 노동자대표회의,로 결정

노동자수입인, 노동자대표회의,로 결정



텔레비전 생방송 통해 각계의견 청취

노동자수입인, 노동자대표회의,로 결정

노동자수입인, 노동자대표회의,로 결정

국제사회 "우방도 적도 없어"

국제사회 "우방도 적도 없어"

국제사회 "우방도 적도 없어"



원용미제출출 및
회의를 위한 회의

국제사회 "우방도 적도 없어"

국제사회 "우방도 적도 없어"

국제사회 "우방도 적도 없어"

강대국의 실리 추구가禍根

강대국의 실리 추구가禍根

강대국의 실리 추구가禍根

강대국의 실리 추구가禍根

강대국의 실리 추구가禍根

사은회

선생님께 감사의 정을 드립니다. 학생시절의 아름다움과 이뤄졌던 추억을 되새기며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남을 기약하는 자리 사은회

★비밀번호와 동등은 서울의 명소로써 500여명 모실수 있는 연회석과 격조로운 실내분위기여러분의 호의찬사를 받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차별점

- 숯불구이, 김치전골
- 산골닭, 부스전골
- 특고기, 인분등등등등

와룡동

봉고출장대기

764/4435는 와룡동의 예약전화번호입니다.

로얄골드 장비세트

전통을 자랑하는 품격 높은 뉴시대

기대감과 인내, 자연과의 대화, 절정적인 순간의 타이밍, 낚시와 놀이, 스릴, 부지와 화이팅 등 낚시의 전미야말로 낭만적인 대학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레저 활동입니다.

한강 낚시터 개장과 더불어, 서울 근교의 낚시터에 낚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로얄이 최고급 낚시 장비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주)로얄상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경향빌딩D
TEL : 783-9914-9915

전국 대학신문 주간교수 70人的 컬럼

회청거리는 時代의 뜰을 거닐며

회청거리는 時代의 뜰을 거닐며, 버릇처럼 되뇌여지는 무수한 낱말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이들의 가슴앓이다. 너무나 처절한 처절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이다. 먼지 묻은 경구가 아니고, 번정거리가 아니기에,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고백이기에 뜰에 이쁨을 새겨주듯, 모래위에 바람을 삼들 조심스럽게 새 내려간 이 時代 知性들의 熱望 그리고 간절한 기도.

尹在天 編

대학의 구입신청은

- 전 화 : (02)741-1661/2
- 주 소 :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10F)
- 대체구좌 : 010579-31-1272038 (우체국)

718-2468 / 712-7398

혜진서관

一、時 評

國體神祕主義가 高揚 皇親國戚가 特權을 향유하는 封建적 專制體制이 再興되고 있는 日本에 對하여 我々가 憂慮하는 것은...

國體神祕主義가 高揚 皇親國戚가 特權을 향유하는 封建적 專制體制이 再興되고 있는 日本에 對하여 我々가 憂慮하는 것은...

國家考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 司法試験에 대해

司法試験은 國家考試의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받는다...

過多선발은 人力需給 調整등에 차질 判·檢事만이 출세라는 고정관념 깨야

考試과목에 외국文化史테스트 이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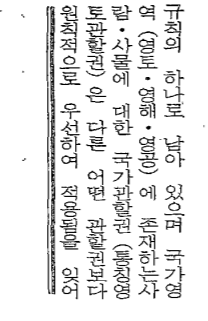
시험과목에 외국 문화사 테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차 樂 吉

시험과목에 외국 문화사 테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외국사적과 일본국헌법연구회 창립다



권 景 수

일본국헌법연구회 창립다. 이 연구회는 일본의 헌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美軍 법적지위 협정에 문제점 많아 美軍관련 수입품 非관세에 불도 제한없어

美軍 관련 수입품 非관세에 불도 제한없어. 이는 무역 협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다...

기획

기획. 이 단락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行政高試에 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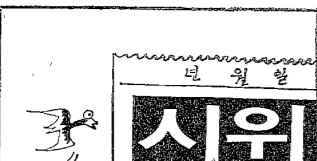
行政高試에 關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한다.

行政高試에 關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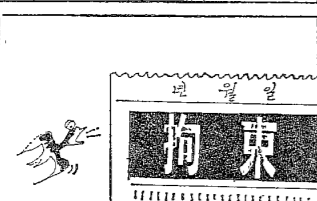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MEMBER'S FREEDOM' (MEMBER'S 자유로움)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a list of products and services.

여로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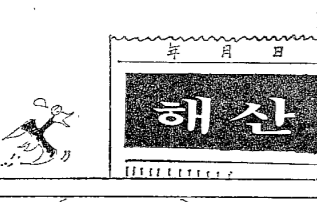
오 향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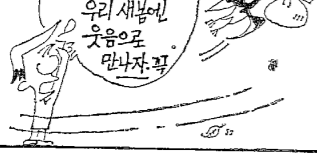
시우



동경



해산



아우내의 새 문정희 작

동문시인문 정희씨의 창작시집 『아우내의 새』가 출간되었다. 순국소녀 유관순을 소재로 하여 45편의 연작시로 읽고 감상할 수 있는 단시집이 서로 의지하지 않고 완전한 한 편의 시가 되게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극한 상황속에 민족적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는 시어로 그려내고 있다.

<일일서각권·107면·2,000원>

안개 계절의 悲歌 姜永譯

노년의 뒤를 밟고있는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작가 玄珠의 작품이 姜永譯에 의해 『안개 계절의 悲歌』로 번역, 출간되었다. 현대 중국사 최대의 격동기 속에 던져진 한 여성의 내심세계의 혼과 사랑, 갈등과 아픔, 좌절과 희망의 격나란한 모습이 함축성있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성과현실시각·375면·3,500원>

理性和現實 그리고展望 朱權著

동서문명과 남북문명이 얽혀 한국적 변화와 유희과정에서 항방각각을 상실하고 있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가치관의 혼미로 계속적인 무계로 상충하고 있는 대화기의 소요성이 필자 朱權은 민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인들의 공감대형성을 부르짖고 있다. <지술문화사·327면·3,500원>

특집 批評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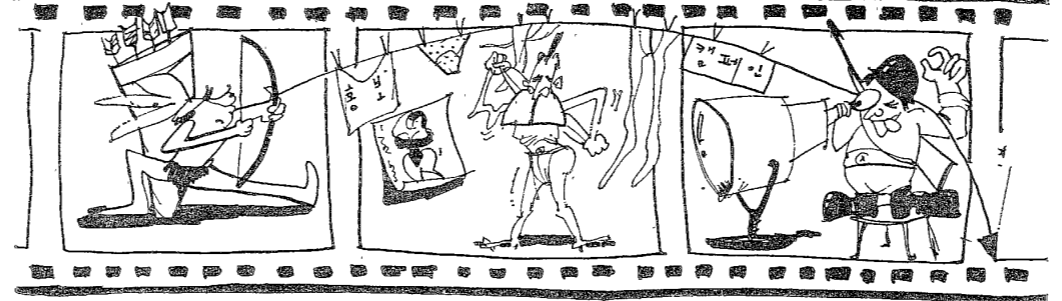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문화영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수십년동안에 걸쳐 누적된 것이어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영화의 성장과정을 돌아볼 때 애당초 서구에서 직수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일단 일본을 거쳐 도입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출발이 한국영화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문화영화가 장르도 역시 그러한 비극적 운명을 걸머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식민지통치의 잔재를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한 예를 우선 『문화영화』라는 용어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1954년에 출판된 일본서적 『영화백과사전』에서 문화영화에 대한 설명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쿠르트 필름을 지역한 말. 제2차대전전의 일본에서 대체로 다큐멘터리영화를 가리켜 사용되었으나 당시에 이미

「啓導性」 일색에 이그러진 문화영화

다큐멘터리는 기록영화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논란이 잦았다. 그런데 1939년 영화법 제정에서 극영화, 뉴스영화를 제외한 영화의 총칭으로 문화영화를 공용어로 정하고 전까지 사용되었다. 전후에 C.I.F의 호칭에 따라 문화영화는 전부 단편영화

한 가지만으로도 영화정책, 특히 문화영화에 관한 정책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방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영화문화를 관장하는 주무부국에서는 한국영화의 진흥을위해 꾸준한 시책을 펴 왔다고 보지만 문화영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단순히 시책보충, 산업 PR 등 정도로 취급되어 왔을 뿐이다. 특히 유신체제하에서는 문화영화가 행정부의 홍보영화로 전락되었고 민간에 의해 제작되는 순수한 문화영화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행영화법에 「공연자가 극영화



(Short subject film), 혹은 교육영화 (Educational film)로 불리우게 되어 문화영화라는 용어가 폐지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제2차대전이 끝난 후부터는 극영화용어인 단편영화로 고쳐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서 만들어 쓰이고 있던 문화영화라는 낯은 용어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관료적인 편견이 작용한 탓인지 클라도 본질적이며 효과적인 시책이 강구되지 않은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 문화영화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영화에 갖는 제도적 (體制的)이나 홍보성이 정부차원의 홍보를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본디 문화영화는 그 광범위한 영역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가

치를 상실하고자 할 때에는 7분 이상의 문화영화를 반드시 상영토록 한다」는 규정이 폐기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현재 각 극장에서 배회하다 극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문화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문화영화라는 것은 민간에서 제작된 것은 거의 없고 극영화제작소에서 만든 홍보영화 혹은 계몽영화 일색으로 되어 있다. 오랜

▲문화영화의 실태를 보면... (Text describing the state of cultural fil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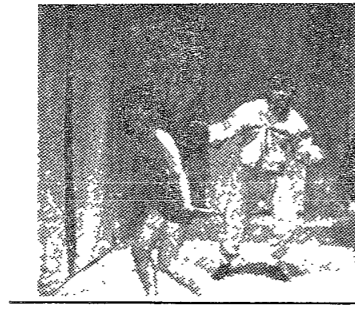
개선방안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개선방안이란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데서부터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문화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본래의 문화영화의 위치를 피차해하기 위해 관계

정일봉 <영화평론가>

俗物的 가치속에 허덕이는 人間像 통렬히 그려내

— 풍자만화연극 「맹」을 보고 —



▲「맹」의 연출은 시인인 정일봉의 연출이다. 그는 평소의 자기희망을 들어올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진실」이라는 귀신은 만나게 되는데, 1천3백여 원이라는 天文學的인 액수의 돈을 「진실」에게 요구한다. 귀신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35년의 시간과 피말피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설득한다.

하지만 사담이 산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요, 뜻이 있다는 말이다.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결과물과 부수적 결과물과 부수적 결과물 따위를 버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가 성취한 것은 한낱 一場夢에 불과한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나 다시 연탄장수의 신분으로 돌아온 것이다.

개다리 小籠위에 놓인 한철의 절실위로 조영이 비친다. 5명의 출연자들이 무대에서 평평한 피리를 들고 돌아간다. 이렇게 시작되는 풍자만화연극 「맹」(姜永譯 작, 김태수 연출)을 보고 난 느낌은 한마디로 그 이틀만이나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연극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무대에서 연기되는 그 무엇이기에 현장성, 극장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지금까지 3차례 공연을 가졌던 연극 「맹」은 이번

극단 신희의 「밤으로의 긴 여로」(오닐작, 이해방 연출) 작품이 오는 24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재공연된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 7시 하루 두차례 공연.

극단 신희의 「밤으로의 긴 여로」(오닐작, 이해방 연출) 작품이 오는 24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재공연된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 7시 하루 두차례 공연.

연극무대

4차 공연에서는 이러한 연극의 특성과 함께 놀이성을 강화하였다. 「맹」은 변동이 심한 현대사 입사회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문제를 마당극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가치관의 혼란속에는 출세, 교육, 이민, 간통 등의 문제가 뒤섞여 있다. 연탄장수를 하는 주인공 「맹철학」의 眞像은 우리 사회에 전연변형된 만연된 한탄주의, 일각

남의 불행에 미치고 사는 잔인한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양심이란 하나의 비수발음 같은 장난거리에 지나지않는 이 시대의 현실과 인간간의 허탈된 오열실리를 연극 「맹」은 아프게 표출하고 있다. 관객들을 기차회전에 침착한 표현으로 설정해놓고 오묘의 화제거리인 북한인의 금강산 탐에 대한 대박을 기대해보부러 들는 시도는 공경대의 폭을 넓히려는 노

「밤으로의 긴 여로」재공연 오는 24일까지 문예회관대극장서

극단 신희의 「밤으로의 긴 여로」(오닐작, 이해방 연출) 작품이 오는 24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재공연된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 7시 하루 두차례 공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사람은 두엇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사람은 두엇인가... (Text discussing the value of life and the meaning of existence)

자, 東國이여!

자, 東國이여! (Text expressing a message to the East, discussing national identity and progress)

투표권

투표권 (Text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voting and civic participation)

나는 본시 하나요, 우리가 되는 것이다

나는 본시 하나요, 우리가 되는 것이다... (Text discussing the concept of self and community)

●부렌스는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콘택트 렌즈를 세척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눈(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시는 분에게는 렌즈의 손질만큼 조심스럽고 소중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렌즈의 손질을 잘 함으로써 눈의 염증, 각막염, 각막혼탁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렌즈를 편안히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없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세렌다는 콘택트렌즈 전문용액 부렌스로 바꿔주세요. 오랜분의 도표를 보시면 부렌스를 쓰셔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콘택트렌즈 전문용액 부렌스는 눈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콘택트 렌즈의 세척·보존·소독을 한번에 해결!

※ 콘택트렌즈 전문용액 부렌스와 생리식염수의 비교

내	용	부렌스	생리식염수	장	단	비	비
처	방	FDA가 공인허용	생리식염수 0.9%	구미	각국에서 콘택트렌즈 전문용액만 사용한다.		
일	소	독	필요없음	염	소독 또는 화학 소독 반드시 필요	콘택트렌즈는 매일 소독해야 합니다. 부렌스는 부렌스에 4시간 이상 담가 두면 염색이 없습니다.	
콘택트렌즈에 대한 작용	소독작용	배우름, 없	없	생리식염수는 0.9%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기간 사용하면 공기 중의 세균이 들어간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존작용	충, 음, 부, 적, 함	없	콘택트렌즈는 높은 염수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 때는 용액에 담가 두어야 합니다. 부렌스는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깨끗한 용액입니다.			
	세척작용	충, 음, 중, 음	없				
	PH	7.0	7.0-4.5	생리식염수는 공기 중의 염산과 염화물과 접촉하여 산성화 되어 갑니다.			
관	중	작	용	부	적	함	부렌스는 눈의 염색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콘택트렌즈 착용시 눈에 자극이나 해를 주지 않습니다.

염소독이 필요없는 콘택트렌즈 전문용액 부렌스의

표준소매가격 : 500ml → 2,200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